

電氣界의 이런일 저런일

사라진 圖面綴
—에밀레 鍾은
올리는데

金善集 (東洋物産株式會社會長)

지난 8月號에 掲載한 第一回 寄稿에 이어, 이번에는 八·一五解放 直前까지 朝鮮總督府 當局이 꾸준히 調査作成한 우리나라 全國水力 地点調査台帳의 發見과 이 珠玉같은 資料가 어 처구니 없이 消滅된 哀話를 回想해보기로 하겠다.

筆者가 解放되던 해 九死一生으로 滿洲에서 避難하여, 11月14日 서울에 到着한 以後 全身이 衰弱하여 休養하고 있다가 다음해 5月 美軍政廳에 勤務하게 된것이 이 貴重한 資料를 發見하는 契機가 됐다.

實은 美軍政廳에서 實施한 渡美訓練 電氣技術者 公募試驗에 應試한 것이 動機가 되어 美

軍政廳 商務部 工業局電氣課에 勤務하게 된 것이다. (商務部長: 吳楨洙, 工業局長: 柳漢相, 電氣課長: 權粹憲)

中央工業研究所에 勤務하고 있던 成瓊鏞氏와 들이 合格되어 서로 出國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지루해 46年 9月부터 正式으로 美軍政廳 公務員生活를 시작했다. 渡美 待機中の 身分이라 特別한 補職을 받지 않고 그 當時 商務部 電氣課에 屬해 있던 電氣試驗所(世宗路에 있는 舊遞信部 附屬建物에 位置하였으며, 現在는 世宗文化會館 北端의 一部자리)에 適當히 出勤하고 있었다.

朝鮮總督府의 組織은 遞信部直轄에 電氣試驗所가 隸屬하였으나, 美軍政이 實施될 때부터는 電力行政을 擔當하는 商務部 管下의 編制에 編入되었다.

餘談이지만 지금은 電氣試驗所 機能이 商工部傘下 國立工業試驗院에 編入되어 있으나 한 때는 遞信部 隸下에 編入되었던 時節이 있었다 美軍政時代의 電氣試驗所 主要任務는 朝鮮總督府時節의 分掌業務를 그대로 承繼하여 積算電力計의 檢定과 電氣標準原器(電壓, 電流關係 副原器가 所藏되어 引受되었다)의 主務官廳으로 君臨하였다.

電氣試驗所 勤務發令을 받고 出勤한지 約 一週日이 되는 어느날 試驗所建物의 各事務室과 電氣計測器 保管室, 積算電力計檢定室 등등을 차례로 기웃거리다가 三層에 있는 倉庫같은 방 문을 열어보게 되었다. 一年 以上 먼지 한번 털지 않은 채 放置한 것으로 보이는 으스스하고 어둑컴컴한 房 한구석에는 부질서하게 세워놓은 測量用폴대의 亂舞狀態가 먼저 눈에 띄었는데 거미줄로 묶어놓은듯한 印象이었다.

暫時後 視力이 調節되어 자세히 방바닥을 보니 平板測量 때 使用하는 TRANSIT와 LEVEL이 保管된 것으로 看做되는 나무상자 10餘개가 어수선하게 쌓여있고, 또 그 바로 옆에 비스듬하게 세워진 폴대들은 紅白色같이 區別할 수 없을 程度로 먼지가 두툼하게 덮혀 있

었다. 한구석에 몰아붙여 쌓아놓은 測量기구 속에는 距離測定用 대나무 줄자, 卷尺들이 방바닥에 마구 흩어져있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平板測量用 트라이·풋트(三脚)와 높이測量에 쓰는 「스다후」들이 우뚝 솟아보였다. 不潔하고 無秩序한 수라장狀態의 土木測量器具를 凝視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정작 놀란 것은 15坪 남짓한 房을 大部分 차지하고 있는 書架 위에 巨大한 圖面綴에 視線이 끌렸기 때문이다.

이 瞬間의 興奮은 偶然한 橫財를 拾得할 때의 氣分이라기보다 冒險家가 보물섬을 헤매다가 目的物인 金銀寶貨를 發見했을 때의 感激과 비슷하였다.

셋치(三寸)쯤 패비는 角木으로 「후렘」을 툰 툰하게 짠 三層書架의 各 선반에는 두꺼운 검은색 表紙의 巨大한 圖面綴(2折中板 크기)이 채곡채곡 잘 整理돼있어 얼핏 눈길을 끌었으나 두툼히 쌓인 먼지 때문에 表紙글씨를 判讀할 수 없었다. 한쪽 갯벽에 만들어붙인 角木棚장에는 30餘卷의 水力地点調査(水力地点의 一連整理番號가 賦與된 書類綴)가 秩序整然하게 꽂혀있었다.

이것을 본 瞬間 反射的으로 書架선반 위에 쌓여있는 圖面綴의 內容을 能히 짐작할 수 있어 確認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먼지 속을 조심스럽게 헤쳐가며 有心히 살펴 보았더니 이게 바로 水力地点의 Dam基本設計圖綴이었다. 日人들이 自己들의 國益을 위해 莫大한 人力과 豫算과 時間과 情熱을 投入하여 作成한 이 貴重한 資料를 發見한 瞬間의 興奮은 마치 無條件降伏한 敵軍으로부터 가장 所重한 戰利品을 引渡받을 때의 感激과 恰似하였다.

解放된 지 一年 以上이 經過되도록 書庫에 放置된 채 冬眠을 繼續하고 있던 이 圖書들은 製圖中인 全國水力地点 基本設計 原圖綴이었다. 表紙위에 뿌영게 앉은 먼지를 입으로 몇번 살살 불어버리자 表紙의 붓글씨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2折 KENT紙 약25매로 綴어져 있는 圖面綴의 表紙를 젖히는 氣分은 未知의 所藏寶物

을 確認하기 위해 寶物상자의 뚜껑을 열 때의 心境이 恰似할 것이다.

이 圖面綴들의 特異한 點은 처음 몇장이 먹으로 完全히 그린 圖面이고 나머지는 大部分 초벌의 鉛筆그림 위에 먹물을 半 乃至 三分의 一쯤 그린 것이고 後半에는 鉛筆만으로 그린 圖面들이 여러 장 綴해 있는 點이다.

이들 土木關係 圖面綴의 內容은 DAM設計의 正面圖, 各種斷面線, 部分詳細圖의 順序로 綴어져 있었다.

퇴약벌과 風雨를 무릅쓰며 무거운 測量器具를 어깨에 메고 긴긴 歲月을 구슬땀을 흘리며 山間僻地를 누벼다닌 努力의 結晶이 드디어 圖面化가 된 證據物들이었다. 筆者는 이 各水力地点의 DAM基本設計圖面綴을 한장한장 넘길 때마다 눈시울이 뜨겁게 느껴졌었다.

이 房을 나올 때의 心情은 幽靈의 집에 몰래 單身侵入했다가 우선 寶物의 所在만 確認해놓고 슬쩍 빠져나가는 사람과도 같았다. 그 當時 27才였던 筆者는 이 깜짝 놀랄 寶物의 發見이 우리나라 水力資源開發의 促進劑가 될 것을 確信했었다.

이 기특한 發見을 上司와 同僚들에게 報告하였으나 별로 탐탁한 反應이 보이지 않아 크게 失望했었지만 머지않아 國有財産에 屬하는 이 資料들이 햇빛 보아 活用될 날이 있을 것으로 믿었다.

美軍政廳 工業局電氣課의 建物位置의 變動經緯를 여기서 說明해 두어야 讀者 여러분이 사라진 記憶을 더듬어가며 나머지글을 興味있게 읽어주실거다.

1946년에는 電氣課가 지금의 서울市警察局자리에 있었는데 그 當時는 倭政時의 俗稱에 따라 흔히 金千代會館(긴지요회관이라고 日人들의 呼稱을 그대로 불렀다)이라 했다. 한때 電氣課가 이 建物 四層에 位置하고 있다가 南大門路 一街 롯데百貨店 건너 國民銀行本店 자리에 있던 舊 第一銀行支店建物(吳禎洙商務部部長이 계시던 자리)과 千代田벨딩(世稱 지요

다벨딩이며 大韓民國 樹立後 1948年 8月부터 商工部廳舍로 使用하다가 現在는 서울信託銀行 本店建物로 改築)새 골목안 20m 地点右側에 서 있는 三層建物로 移動하였다.

筆者는 業務報告次 金千代會館 建物에 가꿈 出入하여 電氣課 幹部들을 만났으나 霸氣에 찬 先輩上司를 거의 모실 機會를 갖지 못했다. 解放後인지라 모든 職員들은 愛國獨立精神은 넘쳐흘렀으나 電氣技術公務員으로서의 國家的 使命이 무엇인지 제대로 認識하는 先覺者가 없었던 것 같았다.

그 後 筆者가 渡美研究를 斷念拋棄하고 차분하게 電氣課勤務를 專念하려고 決心한 47年봄, 技術係長의 補職을 正式으로 發令받아 全國水力地点調査台帳을 챙겨볼 チャンス가 到來하였다.

世宗路 電氣試驗所 앞길에서 車를 내려 단숨에 三層에 뛰어올라가 보았더니 房이 텅텅 비어있고 水力地点調査書와 書架 一切가 보이지 않았다. 놀란 感情을 억지로 鎮靜 시키며 守衛室에 달려가 그 行方을 물었으나 精確하게 說明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알만한 職員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물어본 끝에, 數週日前 金千代會館으로 運搬한 物件이 있다는 情報를 入手하게 됐다. 그 말을 듣자마자 金千代會館으로 달려가 電氣試驗所에서 運搬해온 古文書의 受領 및 保管現況을 關係官에게 물어본 結果 虛亡하기 짝이 없었다. 金千代會館에는 保管할 場所가 마땅치 않아 麻浦刑務

所로 轉送했을 것이라는 消息을 들은 瞬間 맥이 빠지고 落望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한가닥의 希望은 比較的 場所가 넓은 刑務所(特히 解放後 出獄者가 많은 關係로)에는 保管할 자리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 麻浦刑務所 所長을 만나 複雜한 確認節次를 거치면서 採知해낸 結果는 憤하고 悲痛한 終末이었다. 刑務所當局 말에 依하면 「니—다室」(古紙, 破紙를 化學藥品 處理하는 熔液槽)에 이미 投入해 버렸다는 衝激的인 說明이었다. 追跡은 여기서 끝이 났다.

아아!! 憤하고 슬펐도다.

이 珠玉같은 全國水力地点調査設計資料가 무참하게도 再生紙로 둔갑해버렸다니 누구를 怨望 하리오.

朝鮮總督府가 日本의 國益을 위해 오랜 歲月에 걸쳐 莫大한 豫算을 投入하여 調査作成한 圖書와 맞먹는 水準의 全國水力地点基本 調査書와 DAM設計台帳 一切를 우리들의 國力으로 作成하자면 果然 幾年後에 完成될 것인지 寒心하기만 했다.

無慈悲하게도 罪없는 어린아이를 희생시켜 鑄造했다는 옛적의 에밀레鐘은 아직도 殷殷한 餘韻을 永世에 퍼져올려 人間濟度에 기여하고 있을텐데, 貴重한 水資源調査圖書가. 둔갑하여 變形된 再生紙는 우리들에게 무슨 이바지를 하고 있을까 想像하니 悲痛하기 그지없다.

[P. 13에서 계속]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原子炉 導入機數를 40機 内外로 假定하면 經濟的인 側面에서 보더라도 2000년까지 輕水炉型에 依해 生産되는 플루토늄은 상당한 量이 될 것이며 이의 高速增殖炉에 依한 活用이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資源이 豊富한 美國을 除外한 西유럽 및 日本과 같은 에너지資源 主要輸入國들은 高速增殖炉에 依한 에너지의 對外 依存率 減少에 큰 期待를 걸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가 1984년에 Superphenix를

運轉할 것이고, 또한 프랑스 政府가 電力公社(EDF)에 1985年 以前에 大型 高速增殖炉 2機를 發注토록 承諾하고 있고 電力公社도 經濟性만 맞으면 推進하겠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先進諸國에서 高速增殖炉의 技術性 및 經濟性이 立証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를 導入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先進技術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고 또 과감하게 技術要員을 先進國에 派遣하여 專門要員을 養成하여야 할 것이다.